



진짜 진짜 거짓말 아니야! 독서지도안

# 진짜 진짜 거짓말 아니야!



미술 학원에 새로 온 남자 아이와 친해지고 싶어서 얼굴에 시작한 아무말 대잔치! 그런데 뜻하지 않게 거짓말이 자꾸자꾸 부풀어 오른다. 새로운 친구에게 어떻게 말 걸어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슬쩍 웅크하듯 손을 내미는 따뜻한 그림책. '왠지 속아 주고 싶은 거짓말'로 친구에게 웃음과 함께 진짜 속마음을 전해준다. 정말 하고 싶었던 한 마디를 위해 기상천외한 거짓말 대잔치를 벌인 나나의 소동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키고 싶은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해 안절부절하는 어른들도 초대하는 사랑스러운 이야기이다.

조영글 지음

**주제** 이어질 내용과 기르고 싶은 반려동물을 상상하여 표현하기

**권장 차시** 4차시

**대상 학년** 3~4학년

**관련 주제어** 친구 사귀기, 속마음, 우정, 거짓말, 상상표현

### 국어

- 교육 과정 연계**
- [4국01-04] 적절한 표정, 몸짓, 말투로 말한다.
  - [4국03-03]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 [4국05-03]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고 표현한다.
  - [4국05-04]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떠오른 느낌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 미술

- [4미02-03] 연상, 상상하거나 대상을 관찰하여 주제를 탐색할 수 있다.

**작성** 창원 북면초등학교 손희선 선생님

##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그 아이와 친해지고 싶어 열결에 시작한 아무말 대잔치!

나는 미술 학원에서 봤을 때부터 남자아이에게 관심이 있었다. 대뜸 고백할 수는 없어서 여태 있지도 않은 강아지를 열토당토않게 만들어 내며 ‘아무 말 대잔치’를 했던 것이다.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마지막 그 한마디다. “사실은 나 너 좋아해.” 어린아이라도 그런 말을 용기 있게 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강아지 이야기로 무궁무진한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이다. 그런데 다시 찬찬히 보면 지금까지 늘어놓은 강아지 콜라의 특성은 어찌면 나의 성격을 에둘러 말한 것일지도 모른다. 콜라처럼 공도 좋아하고, 사랑스럽고, 말귀도 잘 알아듣고, 콜라처럼 친절하여 ‘좋은 친구’가 될 거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코로나19로 인해 단절되어 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또는 스마트 폰이나 게임의 세계 속에 빠져드는 아이들에게 ‘친구’ 사귀기란 점점 더 어려워진 숙제가 되어간다. 수많은 동화나 그림책이 ‘관계’, ‘사귀기’, ‘사회성 기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수만 가지 갈래의 이야기를 반복해도 ‘친구’와 ‘관계 맺기’는 쉽지 않다. 그런 와중에 조영글 작가의 깜찍하고 귀여운 그림책 『진짜 진짜 거짓말 아니야!』는 친구 맺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또는 이성 친구에게 어떻게 말 걸어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슬쩍 윈크하듯 손을 내밀고 있다. 작가의 말처럼 ‘웬지 속고 싶은 거짓말’을 들어주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함께 이 책을 읽어도 좋을 것이다.

## ■ 학습 목표

- 글에 어울리는 표정과 말투로 낭독할 수 있다.
- 다음 장면에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여 표현할 수 있다.
- 내가 기르고 싶은 반려동물을 상상하여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 ■ 수업 준비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상한 말만 늘어놓았던 경험이 떠오르는 책이다. 주인공 ‘나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 처음에는 친구를 따라다닌다. 그러다 시작한 작은 거짓말은 점점 커지고 커진다.

거짓말을 했던 경험이나 거짓말에 대한 생각을 나누며 읽기 시작한다. 이 책의 면지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기능을 한다. 앞 면지는 책 내용에 호기심을 갖게 한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상해보고 말풍선을 넣는 활동을 한다. 글이 두 아이가 대화하는 형식이므로 장면마다 낭독극을 하기 좋다. 적절한 표정과 말투로 교사와 번갈아 가며 읽기, 짝과 번갈아 가며 읽기를 하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겠다. 내가 작가라면 다음 내용을 어떻게 썼을지 상상하여 한 장면을 직접 그리고 써 보는 활동도 한다. 그림책을 다 읽고 내가 기르고 싶은 반려동물을 상상하고 표현하여 친구들에게 ‘아무 말 자랑하기 대회’를 해 보고, 나만의 친구 사귀기 방법을 나누면서 마무리한다.

**수업 준비물** 말풍선 포스트잇, 색연필, 사인펜

## ■ 학습 과정

읽기 단계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표지 읽기 - 거짓말에 대한 경험 나누기 앞 면지 읽기 - 앞 면지에 말풍선 넣기	2차시
읽는 중	나의 경험 나누기 - 친구를 사귀기 위해 해 봤던 일 나누기 낭독하기 - 장면마다 방법을 바꿔 낭독하기 내가 작가라면? - 다음 장면 상상해서 표현하기	
읽은 후	나만의 친구 사귀기 방법 소개하기 아무 말 자랑하기 대회 - 나만의 '콜라' 상상하여 표현하기 - 아무 말 자랑하기 대회 참여하기	2차시

### 읽기 전

#### 1. 표지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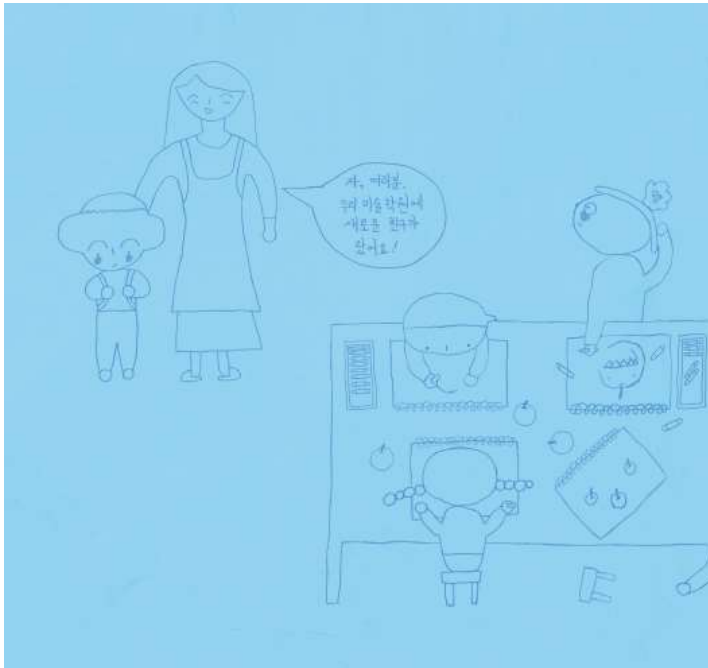
##### ■ 책 제목을 함께 읽기

- 왜 책 제목이 『진짜 진짜 거짓말 아니야!』일까요?  
예) 거짓말을 해 놓고 안했다고 우기는 이야기가 나와서요.  
거짓말을 안했는데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서 생긴 일이 나올 것 같아요.  
진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아이가 주인공이라서 제목 『진짜 진짜 거짓말 아니야!』 같아요.  
큰 빨간색 개를 봤다고 했는데 친구가 안 믿어서 진짜 진짜 거짓말 아니라고 한 것 같아요.
- 거짓말을 해 본 경험이 있나요?  
예) 동생을 놀려서 울렸는데, 엄마한테 혼날까봐 아니라고 거짓말했어요.  
엄마가 만든 반찬이 맛있었는데 엄마가 속상할까봐 맛있다고 했어요.  
친구가 산 옷이 별로였는데 예쁘다고 했어요.  
숙제 다 안했는데 놀고 싶어서 했다고 거짓말했어요.  
아프지 않는데 학원가기 싫어서 아프다고 했어요.
- 거짓말을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예)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어요.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어요.  
엄마가 속상해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끝까지 비밀을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요?  
예) 혼나는 것을 미루기 위해서요.  
상처 주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해요.  
솔직하게 말하면 손해 볼 것 같아서요.  
불편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요.  
순간의 행복을 위해서요.

## 2. 앞 면지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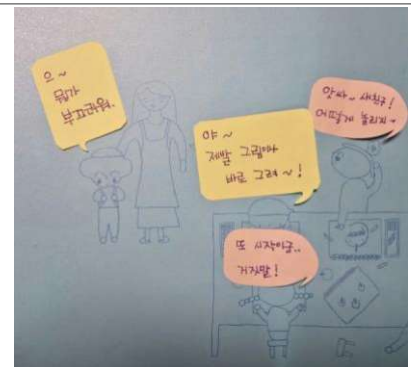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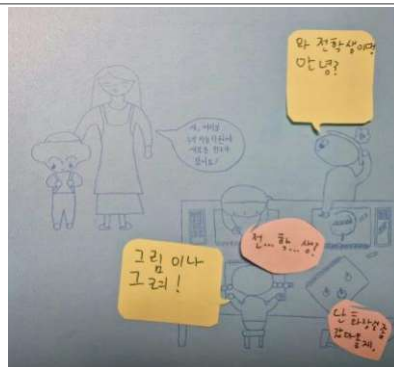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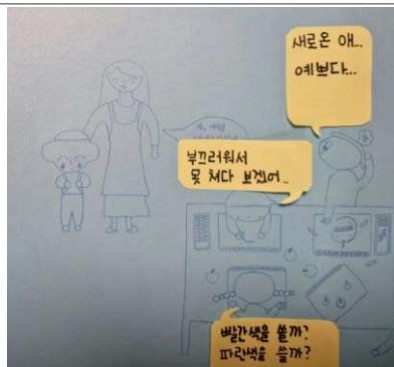
### ■ 앞 면지 속 그림 살펴보기



- 앞 면지 속 그림은 어떤 상황일까요?  
예) 미술학원에 새 친구가 왔어요.  
다른 아이들은 관심이 없는데, 한 명만 쳐다보고 있어요.  
새로 온 친구는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 ■ 앞 면지에 말풍선 넣기

- 자신이 생각한 상황에 어울리게 말풍선을 넣어봅시다.



- 표지와 앞 면지를 살펴보니 책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 같나요?  
예) 새로 온 친구와 바라보고 있는 친구가 거짓말 때문에 싸우는 이야기요.  
새로 온 친구가 미술학원에 가기 싫어서 선생님께 거짓말하고 도망갈 것 같아요.  
뽕쟁이 친구가 새로 온 친구에게 거짓말을 계속 할 것 같아요.

## 읽는 중

### 1. 나의 경험 나누기

- 그림 속 장면 살펴보기



- 놀이터에서 친구와 놀았던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 놀이터에서 지옥탈출 놀이를 했어요.  
친구랑 철봉에서 거꾸로 오르기 대결을 했어요.  
친구들과 피구를 했어요.
- 주인공을 찾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예) 그네를 타고 있는 친구를 보고 있어요.  
숨어서 친구를 몰래 살펴보는 것 같아요.



- '나나'는 왜 얼굴이 빨개졌을까요?  
예) 강아지 이름을 물어봤는데, 자기 이름을 말해서 당황했어요.
- '나나'는 왜 강아지 이름을 '콜라'라고 했을까요?  
예) 콜라 캔이 보여서요. 없으면서 거짓말한 것 같아요.

## 2. 낭독하기

### ■ 낭독하기

- 낭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예) 정확하게 또박또박 읽어요.

어울리는 목소리와 말투로 읽어요.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며 읽어요.

역할극처럼 표정이나 행동을 함께 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 이 장면에서 여자 아이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예) 남자 아이의 말을 착각해서 부끄러운 것 같아요.

당황한 것 같아요.

- 여자 아이의 말은 어떤 표정과 말투로 낭독하면 좋을까요?

예) 빨개진 얼굴 표정과 당황스러운 말투로 낭독해요.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낭독해요.

눈을 다른 곳으로 쳐다보면서 말해요.

- 남자 아이의 말은 어떤 표정과 말투로 낭독하면 좋을까요?

예) 무심한 말투로 말해요.

강아지를 만지작거리면서 궁금한 말투로 말해요.

Tip. 장면마다 역할을 바꿔서 읽으면 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 이 장면은 여러분은 여자 아이, 선생님은 남자 아이 역할이 되어 함께 낭독해봅시다.

- 이번에는 여학생은 남자 아이, 남학생은 여자 아이 역할이 되어 낭독해봅시다.

- 짝과 가장 재미있는 장면을 골라 서로 역할을 정해 읽어 봅시다.

예) 콜라 캔을 보면서 코올~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웃겼어요.

콜라 방귀 소리가 끝내준다는 장면이 재미있었어요.

Tip. 반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낭독에서 역할극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도 괜찮다.

## 3. 내가 작가라면?

### ■ 다음 장면 상상하기

- '콜라'에 대한 거짓말을 부풀리면서 친구를 데려가던 '나나'.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미안해"라고 외치면서 도망갔을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아무 강아지를 손짓하며 "콜라다!" 외쳤을 것 같아요.

“나 엄마가 심부름 시켰는데, 깜빡했어. 우리 엄마 엄청 무서워. 콜라는 다음에 보여줄게!”하고 반대편으로 도망간다.

#### ■ 그림 속 장면 다시 살펴보기

- 장면마다 등장하는 물건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 콜라 캔이요.

- 작가님이 장면마다 콜라 캔을 그린 이유가 있을까요?

예) ‘나나’가 계속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 같아요.

- 그렇다면 ‘나나’는 왜 계속 거짓말을 했을까요?

예) 새로 온 친구와 친해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거짓말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처음에 했던 거짓말을 막으려고 계속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 친구와 친해지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던 경험이 있나요?

예) 작년에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척 했어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데 친구가 떡볶이를 먹자해서 말 못하고 먹은 적이 있어요.

친구가 책을 좋아해서 빌려줬는데, 하나도 안 읽고 재미있었다고 돌려줬어요.

#### ■ 이어질 이야기 상상하기

- 마지막 장면을 보고, 내가 작가라면 이어질 이야기를 어떻게 쓸지 상상하여 완성해봅시다.



내가 만든 뒷이야기

예) ‘나나’는 엄마를 졸라서 강아지를 키우게 되었어. 남자 아이와 매일 함께 강아지 산책을 시키면서 더 친해졌어.

미술학원에서 다시 만난 두 친구는 서로 얼굴을 그려주면서 더 친해졌어. 남자아이는 ‘나나’에게 받은 꽃핀을 브로치로 달고 왔어. ‘나나’는 너무 행복했어.

## 읽은 후

### 1. 나만의 친구 사귀는 방법 소개하기

#### ■ 나만의 친구 사귀기 방법 소개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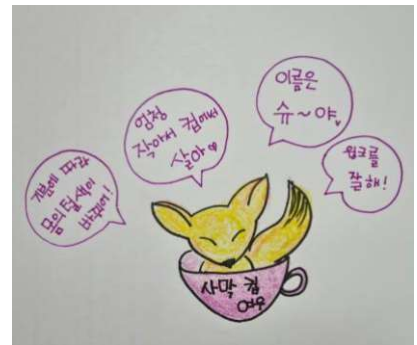
- '나나'가 '콜라'를 만들어 거짓말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예) 친구가 좋아서 친해지고 싶었어요.  
친구 사귀는 방법을 잘 몰라서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 '나나'와 우리 반 친구들에게 나만의 친구 사귀기 방법을 소개해봅시다.  
(예) 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먹을 때 '한 개 먹을래?' 물어보고 나눠먹으면서 친해져요.  
좋아하는 가수나 음식 등 나와 통하는 관심사를 찾아서 이야기를 해요.  
먼저 문자나 메신저로 연락을 해서 솔직하게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해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힘들어 보일 때 먼저 가서 도와줘요.

### 2. 아무 말 자랑하기 대회

#### ■ 나만의 '콜라', 기르고 싶은 반려동물 상상하기

- 내가 기르고 싶은 반려동물을 생각해봅시다. 평소에 기를 수 없었던 다양한 동물을 떠올려보고 '나나'처럼 아무 말로 부풀려 소개하는 말을 쓰고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Tip. 날아다니는 돼지, 집에서 키우는 고래 등 마음껏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도록 한다. '콜라'처럼 이름도 지어주면 더 재미있게 소개할 수 있다.



내가 상상한 나만의 반려동물

#### ■ 아무 말 자랑하기 대회

- 상상한 반려동물을 아무 말로 자랑해봅시다. 잘 듣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로 재미있게 자랑하는 친구를 정해 봅시다.

예) 나의 반려조 큰수리야. 물 대신 기름을 먹어. 기름을 먹으면 20m까지 커지게 되지. 친해지면 타고 다닐 수 있어. 가끔 아파트 옥상에 앉아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 햇빛을 가리고 너무 무섭대.

나의 반려양 단단이야. 언덕오르내리기 왕이라 에베레스트 산에도 올라갔어. 뿔이 엄청 단단해서 내

가 매달려도 괜찮지. 털이 가벼워서 가끔 하늘을 날기도 해. 그걸 보면 양구름이 떠 있는 것 같지. 그리고 호랑이를 잡아먹어.

내 반려 사막여우는 슈라고 해. 윙크를 잘하고 엄청 작아서 컵에서 살아. 기분에 따라서 몸의 털색이 변하지. 화가 나면 파랗게 변하고, 슬플 때는 검은 털이 되지. 지금은 노란 털인데 어떤 기분일까?